

		보도자료		<div>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div> <div>30년의 혁신, 30년의 성장</div>
배포 일시		2014. 8. 6(수)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어촌어항과	담당자	<div>• 과장 최현호, 주무관 오정금</div> <div>• ☎ (044)200-5650, 5658</div>	
보도 일시		2014년 8월 7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7(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어촌에 상생하는 바닷속 체험마을 만들기 시동 **‘바닷속 체험마을’ 공모…1곳 선정해 시범모델로 개발**

해양수산부는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14~’15년, 10억원)을 공모한다.

바닷속 체험마을은 어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어항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유허어항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바닷속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어촌 6차산업화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추진된다.

* 어촌 6차산업화 : 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

해양수산부는 동 시범사업이 어촌과 민간업체간 갈등을 극복하는 상생 모델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편의 시설의 확충,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바닷속 체험마을을 연안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국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 공모는 8월 7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어촌과 민간이 협력하는 바닷속 체험마을 계획을 수립, 후보지 1개소를 선정해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소식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어촌과 민간 협력체계, 해중레저 활동여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1차 서면평가하고,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 1 바닷속 체험마을 예시

기본방향	(1단계) 다이빙숍+어촌계+지자체 협력체계 (2단계) 기반시설 확충, 바닷속 경관 조성 등
주요기능	(체험) 비치/보트 다이빙, 해중전망대, 관광잠수정 등 (교육) 초급자, 다이빙교육자 교육 공간 (안전) 매뉴얼 작성, 구조장비 비치, 안전사고 관리체계 등 (홍보) 지역내 다이빙숍 소개, 지역내외 관광지
시범사업 예시(안)	

참고 2 바닷속 체험활동의 종류

- 바닷속에서의 레저활동으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Sea walking 등의 활동이 있음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Sea walking
			